

# “중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리스크 관리 필요”

### 국민연금 최근 5년간 헝다그룹 누적투자액 410억원 올 초 투자액 50억, 9월만 8억원으로 평가액 42억 손실

국민연금이 수년간 투자한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 부도 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중국 헝다그룹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총 410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주식 위탁 투자로 진행 중인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액은 2016년 26억, 2017년 123억원으로 최대치를 보였고, 이후 감소해 2019년 87억, 2020년에는 60억이며, 올해 9월 기준으로 투자 잔액은 8억원(지분율 0.02%)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주 의원은 “헝다그룹이 대출 및 채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60억원이었던 투자액이 현재 국민연금 투자 잔액이 8억원으로 감소해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 업종의 침체가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중국 정부와 헝다그룹의 대응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필요 시 위탁운용사에 전액 매도 지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의 기업정리 등의 이력을 고려할 때 채무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10월 들어 헝다그룹에 대한 주식 거래 정지가 이뤄지고 있어, 국민연금 투자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열사 자본 매각을 위해 헝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고 해도 향후 회생 가능성 및 투자액 회수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성주 의원은 “헝다그룹이 대출 및 채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60억원이었던 투자액이 현재 국민연금 투자 잔액이 8억원으로 감소해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 업종의 침체가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중국 정부와 헝다그룹의 대응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필요 시 위탁운용사에 전액 매도 지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대인권 구매하면 미취학 자녀 무료 시즌권

### 무주덕유산리조트 2021~22 스키 시즌권 초특가 판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21/2022 동계시즌을 맞아 오는 10월 5일부터 특가 스키 시즌권을 판매한다.



부영그룹 무주·오부 통합 시즌권 구매자에게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시즌권 혜택에 더불어 오부리조트에서도 객실 우대권, 리프트 40% 할인권, 렌탈 50% 할인권, 한 살매 20% 할인권, 곤도라 50% 할인권을 각 5매씩 제공하며, 시즌라커 구매 시 30%의 할인과 시즌권 구매자 우선 배정의 혜택도 주어진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대비 할인율을 대폭 늘리고 대인 1명이 시즌권 구매 시 미취학 자녀 1명에게 무료 시즌권을 제공(발급비 2만원 별도)하는 등 새롭게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간은 2차 특가로 판매가 진행되고, 11월 13일부터 폐장일까지는 정상가로 판매된다. 통합 시즌권은 스키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시즌 중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1차 특가 판매 기간에는 정상가 일반고객 기준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3인 이상의 가족이 패밀리권 구매 시 총 금액의 10%가 추가 할인되고, 연속 구매 고객에게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만5천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등 전년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단, 패밀리권과 연속 구매 고객의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즌권 구매 고객에게는 객실, 장비, 부대시설 등 더욱 다양한 할인 혜택 또한 제공한다. 주중·주말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가족호텔/국민호텔 객실 할인 우대권 4매, 세인트휴 사우나 30% 할인권 5매, 스키/보트 장비대여 50% 할인권 4매, 시즌라커 구매 시 20% 할인 직영 식당음료 10% 할인, 곤도라 30% 할인권 4매도 제공한다.

관광콘도라는 일 년 내내 인기가 좋아 할인 이용 기간을 늘려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시즌 처음으로 선보여 호응을 얻었던 부영그룹 무주·오부 리조트 통합 시즌권도

판매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시즌권 금액에 성인 10만원, 소인 7만 원만 추가하면 무주와 오부 스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부영그룹 무주·오부 통합 시즌권 구매자에게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시즌권 혜택에 더불어 오부리조트에서도 객실 우대권, 리프트 40% 할인권, 렌탈 50% 할인권, 한 살매 20% 할인권, 곤도라 50% 할인권을 각 5매씩 제공하며, 시즌라커 구매 시 30%의 할인과 시즌권 구매자 우선 배정의 혜택도 주어진다.

오부리조트는 태백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백두대간 1,420m 함박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청정고원 구름 위 슬로프에서 짜릿한 쾌감은 물론 환상적인 전망을 만끽할 수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6.11km의 국내 최장 슬로프를 비롯해 34면의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와 최고 경사도 78%를 자랑하는 레이더스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대표 스키장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새로워진 2021/2022 특가 시즌권을 선보이며 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덕유산리조트 홈페이지(www.mdysort.com) 오부리조트 홈페이지(www.o2r.com)를 참고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 신동진보다 밥맛 좋고 병에 강하군?

### 농진청, 참동진 벼 품종 개발 신동진의 장점 그대로 유지 이삭도열병 등 저항력 더 강해



‘참동진’ 식물체의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신동진’의 우수한 밥맛 등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에는 훨씬 강한 새로운 벼 품종 ‘참동진’이 개발됐다.

참동진은 이삭도열병과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벼 수량 확보가 가능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에 대해 품종으로 참동진을 개발해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1999년 개발된 신동진은 쌀알이 일반 품종에 비해 1.3배가량 크고 밥맛이 좋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2021년 현재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8%(11만 5,943ha)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넓은 면적에서 오래 재배되다 보니 최근 이삭이 말라 버리는 이삭도열병과 잎이 하얗게 말라 죽는 벼흰잎마름병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벼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피해가 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참동진은 신동진과 유사한 조성이 96.3%까지 유사하며 이삭 색은 시기, 쓰러짐 정도, 수량성 등 대부분의 재배특성이 비슷하다. 특히 쌀알은 신동진과 똑같이 현미 천 알의 무게가 26.9g으로, 일반 품종(20.4g)에 비해 1.3배 무겁다. 밥맛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한 밥맛 검정에서 신동진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참동진과 신동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병에 대한 저항성이다. 참동진은 야생 벼에서 유래한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 Xz1을 지니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저항성을 가진다. 실제 참동진과 신동진에 벼흰잎마름병균인 ‘Xz3’를 접종 실험한 결과, 참동진은 이상이 없었지만 신동진은 병이 발생해 백미 수량이 30% 감소했다. 또한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20ha를 시범적으로 재배한 결과, 참동진은 신동진에 비해 이삭도열병 발생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동진은 현재 보급용 생산을 위한 증식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2023년부터 종자 판매를 실시하고, 정부보급용은 2024년부터 국립종자원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내년도 참동진 종자 보급은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종자를 농가 자율교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기영 과장은 “참동진은 신동진의 재배 안정성을 개선한 품종으로 쌀알과 밥맛이 거의 같아 신동진 브랜드 쌀의 원료곡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에서 참동진을 시범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김모 씨는 “참동진이 신동진에 비해 벼흰잎마름병과 이삭도열병에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에 강한 참동진이 확대 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올 하반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자 모집

### 경진원, 이달 18일까지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은 2021년 하반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이번 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소재의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최대 2년)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우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혁신가로 선발된 청년들은 지난달 선발된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배치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며, 2년간 근무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년간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현재 129개사 165명이 참여 중인 이 사업은 100여 명의 정규직 전환과 창업 유도 성과를 달성했으며, 다양한

교육 진행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기술 습득 등 참여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모집 규모는 58명(전주 20, 군산 7, 익산 6, 남원 8, 김제 7, 고창 3, 부안 2)이며, 2021년 1월 1일 기준 만 18~39세의 도내 소재자를 유지하고 있거나 1개월 이내 도내로 소재자를 옮길 청년을 뽑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한 청년혁신가는 “지원사업을 통해 회사 내에서 업무역량을 기르면서 많은 도전을 할 기회를 얻었고, 우리 회사의 발전은 물론 본인의 정규직 전환에도 도움이 되었다”며 “취업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소중한 기회인 만큼 많은 청년이 새롭게 도전해 꿈을 펼쳐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http://청년혁신가.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치경 제팀(☎063-711-2086~8)으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건협 전북도회, 이달 한달간 ‘올 하반기 임금실태 조사’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10월 한 달간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2022년 상반기 적용예정)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는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각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건설임금동향 파악 및 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기준노임단가로 중요하게 활용된다.

윤방섭 회장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노임단가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협 전북도회는 전 회원사에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표’를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지방조달청은 5일 김제시에 소재한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인 한삼코(주)를 방문하여 생산 현황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전북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 현장방문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5일 김제시에 소재한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인 한삼코(주)(대표 조민수)를 방문하여 생산 현황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품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지정된 제품이다. 현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전북 도내 업체는 14개사이다.

올해 2차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한삼코(주)의 ‘스마트 물관리 기능의 수로형 STS 라이닝 저수조’는 콘크리트 저수조 내부의 기존 도류벽 및 코

너 부위 정체를 방지하는 수로형 태의 스테인리스 라이닝으로 물탱크의 위생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수질측정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상수도 스마트화 및 수질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안전 확보에 용이한 제품이다.

이주현 청장은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들이 감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 등 적극행정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지속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치유농업, 소방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

‘치유농업’ 활동이 각종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각종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동을 적용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소재와 자연을 활용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농업 활동을 말한다. 고위험 직무군인 소방관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보다 높은 의상 후 스트레스나 각종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0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23.3%는 수면장애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지난해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올해 4월~7월, 9차례에 걸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소재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식물에 보고되고 느낄 수 있는 ▲채소와 허브 재배 텃밭 조성하기 ▲접시정원과 향기 주머니 만들기 ▲꽃 핀지 쓰기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참여 소방관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안정과 이완 관련 지표는 51% 높아지고 긴장감 스트레스 지표는 10% 감소했다. 또한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전보다 23% 줄어 들었다.

아울러 순창군과 협력해 환경이 쾌적한 치유농장을 선정하고 오솔길 걷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토록 한 결과, 휴식과 이완 관련 감성이 9%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농진청은 그간 치유농업 활동의 과학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지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연구는 생애주기를 넘어 직무별 맞춤형 치유농업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소방관 복지와 정신건강 관련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국민권익위·LX공사 콘서트 통한 청렴교육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이하 LX공사)가 청렴을 입힌 별주부전을 통해 재미를 더한 청렴교육으로 눈길을 끌었다.

LX공사는 5일 전주 LX공사 본사에서 임원진과 3급 이상 관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청렴 라이브’를 선보였다. ‘청렴라이브’는 공직자와 국민이 청렴을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2013년부터 콘서트 형식을 접목해 호평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콘서트는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로 열고 샌드아트 공연으로 마무리했다. 출세를 꿈꾸는 용궁나라 공무원 자라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의 판소리로 그려낸 ‘별주부전’으로 흥을 돋웠고, 공직자의 고민을 상황극으로 연출한 ‘고이사의 하루’로 즐거움을 더했다.

LX공사는 청렴 콘서트를 판소리와 상황극, 샌드아트 등 다양한 경계를 뛰어넘는 방식을 통해 공직자들의 이해를 더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